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5월 6일 (어린이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8-10절

설교제목 :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에베소의 회당을 다시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8절) 우리말 ‘담대히 강론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르레시아조마이’가 원문에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일관되게 전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막1:14-15**)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지창조와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즉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점을 확보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강론하고 권면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물이며, 바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체로 죽은 후에 가는 유토피아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저 너머의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분명한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롬14:17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화평과 희락은 모두 **관계적 차원**의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온 만물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살롬(평화)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살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롬14:13, 18)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화평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회복도 중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서는 안됩니다.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서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참고 **마5:23-24**)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롬 14:17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편입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

량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갈5:22-23)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 변화와 갱생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막10:15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받들지 않는다’는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었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인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가 밀접하게 연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취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수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이다운 기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용성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동의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요 1:12)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이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강론하고 권면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2)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 3)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가 밀접하게 연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배만 잘 드려서는 안됩니다.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서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참고 마5:23-24)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